

2026. 9. 29.(화)
보도시점 심포지엄 시작(15:00) 이후 배포 2026. 9. 29.(화)

「미디어, 마음을 쓰다 : 편견을 넘어 공감으로」 정신건강 보도 위한 미디어 역할 논의

- 보건복지부, 한국기자협회·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과 함께

2026년 정신건강 미디어 심포지엄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현),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하 ‘중앙지원단’, 단장 백종우)은 9월 29일(화) 15시 르메르디앙 서울 명동(서울 중구)에서 2026년 정신건강 미디어 심포지엄 「미디어, 마음을 쓰다 : 편견을 넘어 공감으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대한 자문·지원기구

(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이번 심포지엄은 취재·제작 현장에서 직무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겪는 언론·미디어 관계자의 마음건강을 살피는 한편, 미디어에서 정신건강이 어떻게 비춰지는지 공유하고 국민의 균형 있는 정신건강 보도를 위한 미디어의 역할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1부에서는 참사 현장과 긴박한 취재 환경에서 근무하는 언론·미디어 관계자의 정신건강 이해를 높이고 소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등을 주제로 하여, 신영철 원장(인천참사랑병원)이 강연을 진행했다.

2부에서는 패널 토의가 진행되었다. 김혜민 PD(전 YTN라디오)가 진행을 맡고, 김유나 기자(국민일보), 백종우 교수(경희대 의대), 이영렬 원장(국립법무병원), 이정하 대표(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임정인 PM(밀알 유튜브 <알티비> 채널), 최광일 PD(JTBC)가 패널로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그동안 국민 인식변화를 위한 사회관계망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함께 공유하고, 언론·미디어

어가 국민의 정신건강 인식을 공감과 이해의 방향으로 이끌어갈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은 환영사를 통해 “정부가 아무리 촘촘한 정신건강 안전망을 구축하더라도 오해와 편견이라는 문턱이 남아있다면 도움이 필요한 국민은 선뜻 문을 두드리지 못한다” 라며, “미디어와 언론은 국민과 정신건강 정책을 연결하는 중요한 정책 파트너이며 앞으로 언론·미디어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중앙지원단 백종우 단장은 “정신건강은 우리 모두의 일상이자 사회적 과제이며, 미디어는 마음이 아픈 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사회에 손을 내밀도록 이끄는 가장 중요한 통로다” 라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한국기자협회, 중앙지원단과 함께 2024년 11월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을 제정한 이후 권고기준 확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전문은 한국기자협회 누리집 (<https://www.journalist.or.kr/>)과 중앙지원단 누리집 (<https://nmh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붙임> 1. 2026년 정신건강 미디어 심포지엄 개요
2. 2026년 정신건강 미디어 심포지엄 포스터
3.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담당 부서 <총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책임자	과 장	우경미 (044-202-3860)
		담당자	사무관	최정상 (044-202-3862)
담당 부서 <행사 운영>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책임자	사무국장	나희경 (02-2204-1446)
		담당자	사무국원	이다경 (02-2204-1452)

□ 행사 개요

- (일시) 2026. 9. 29.(화) 15:00~19:00
- (장소) 르메르디앙 서울 명동 미드센추리홀 (서울 중구)
- (주최/주관) 보건복지부, 한국기자협회,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 (참석자) 언론인, 방송·뉴미디어 콘텐츠 제작자 등
- (주요 내용)
 - (1부) 취재·제작 현장에서 지친 언론·미디어 관계자를 위한 힐링 강연
 - (2부) 정신건강 보도 빅데이터 분석 결과 공유 및 정신건강 편견 및 낙인 해소를 위한 언론인·전문가·당사자 패넌토의
- (세부 일정)

시간	내용
○ (사회) 김혜민 PD (전 YTN라디오 PD)	
15:00~15:10('10)	□ 개회사 _ 백종우 단장(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_ 박종현 회장(한국기자협회) □ 환영사 _ 이선영 국장(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 축 사 _ 남윤영 센터장(국립정신건강센터)
[1부] 특별강연 : 지친 언론인들을 위한 힐링 강연	
15:10~15:50('40)	□ (강연) 신영철 원장 (인천참사랑병원 「그냥 살자」 저자)
15:50~16:00('10)	쉬는 시간
[2부] 패넌토의 : 프레임 속 정신건강, 변화를 향해	
16:00~17:30('90)	- (진행) 김혜민 PD(전 YTN라디오 PD) - (패넌) 김유나 기자(국민일보), 백종우 교수(경희의대) 이영렬 원장(국립법무병원), 이정하 대표(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임정인 PM(밀알 유튜브 <알티비> 채널), 최광일 PD(JTBC)
[3부] 종합토론	
17:30~19:00('90)	□ 내빈인사 및 만찬

2026년 정신건강 미디어 심포지엄

미디어, 마음을 쓰다

편견을 넘어 공감으로



2026.9.29. (화)
15:00~19:00

르메르디앙 서울 명동
4층 미드센추리홀

✦ 특별강연 지친 언론인들을 위한 힐링강연

신영철 원장 (인천참사랑병원, 「그냥 살자」 저자)

✦ 패널토의 프레임 속 정신건강, 변화를 향해

진행 | 김혜민 PD(전 YTN라디오)

패널 | 김유나 기자(국민일보) 백종우 교수(경희의대)

이영렬 원장(국립법무병원) 이정하 대표(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임정인 PM(말알 유튜브 <알티비> 채널) 최광일 PD(JTBC)



보건복지부



한국기자협회
JOURNALISTS ASSOCIATION OF KOREA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The National Mental Health and Welfare Commission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정신질환(정신건강) 정보를 다루거나 이를 언급하는 언론은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줄이기 위해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을 확인하고 반영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1. 정신질환은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며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 가. 정신질환은 고혈압·당뇨처럼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질환 중 하나로 국민 4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 나. 다양한 회복 사례 보도는 정신질환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사회 통합을 촉진합니다.
2. 다음과 같은 표현은 정신질환에 대해 편견·낙인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가. 혐오·공포 조장 (예. ‘병원 탈출’, ‘잔혹범죄’, ‘흉기테러’ 등)
 - 나. 진단명을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의 수식어로 사용 (예. ‘조현병 A씨’, ‘우울증 환자 A씨’, ‘정신질환자 A씨’ 등)
 - 다.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비하 (예. ‘정신병자’, ‘사이코’, ‘저능아’ 등)
3. 기사 제목에 정신질환 관련 언급을 지양합니다.
 - 가. 제목이나 도입부에 들어가는 정신질환 관련 단어는 편견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4. 정신질환을 범죄 동기·원인과 연관시키는 데 극히 신중해야 합니다.
 - 가.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토대로 정신질환자가 일으킨 사건·사고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 나. 수사 과정에서 정신질환 병력이 확인되었어도, 사건·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지기 전에 이를 암시해서는 안 됩니다.
 - 다. 정신질환이 사건·사고와 연관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범죄의 유일한 원인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 라.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건·사고의 반복성을 암시하는 용어(‘또’, ‘연이은’, 등)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5. 사진·삽화·영상, 통계자료 사용 시 부정적 묘사를 지양합니다.
 - 가.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하는 삽화나 영상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나. 자료의 일부만 분석한 정신질환 관련 통계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2024.11.22.

한국기자협회, 보건복지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